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운명

임 동 규  
(이사, 범민련 고문)

## 1. 일본의 반동화

일본의 보수화, 반동화, 제국주의화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예컨대 “다른 나라가 일본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준비하거나 그런 의사를 밝힐 때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상대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선언은 2003년 1월 일본의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인 이시바시 시게루 방위청장관의 국회 답변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인 침략의지는 일상적인 생협운동을 통한 민족적 대중적인 합의에서도 엿볼 수 있어서 경중을 올려주고 있다. 즉 일본의 생협운동은 그저 외형적인 도시-농촌간의 단순한 자매결연운동만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조차 우선 일본의 농업, 농촌을 살리자는 것인데 그러한 농촌을 살리자는 의지 속에는 언젠가는 꼭 갖추기를 열망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력의 배양기로서의 농민, 농업, 농촌의 유지 건설인 것이다.

그것은 현대전이 아무리 과학기술에 기초한 정밀 기동전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전래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의 야전을 염두에 둘 때 농촌 농민 출신이 보다 강한 적응 능력을 발휘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농민들은 무엇보다도 집요한 그 의지력에 있어서나 그 도덕적 기초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데 보다 순수한 열정을 바칠 수 있게 되고 상호협조의 능력도 뛰어나게 마련이다.

요컨대 일본의 농민, 농업, 농촌 보호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배양기(培養基)로서의 농촌건설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역사적으로도 수없는 외침(外侵)을 당해온 우리 민족으로서는 서로 엄중한 경각

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 2.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한반도 동북아정세

용산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그리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의 성격을 둘러싸고 몇 가지 엇갈린 견해들을 열거해 보자.

그 첫째는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새 군사전략에 기초한 1990년대 초부터의 진행과정으로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견해는,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조약당사국(미국)이 행동할 수 있고 1950년 1월 9일 미 상원이 이를 비준하면서 추가한 양해사항에서조차 “타방(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군수지원협정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 것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되 하위법을 수정하여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변경시키려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즉 한미연합사의 작전변경을 지역적 내지 전 세계로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 분쟁의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들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공표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한국군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견되어 미군지휘 아래 있으며 금년 8월이면 일부가 이라크 전쟁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이나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이라크에 차출하고 한국군은 전후 건설 복구지원만을 한다고 강변하는 것은 전혀 진실성 없는 대국민 호도일 뿐임이 분명하다.

문제가 설사 액면 그대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분쟁에 투입되고 한국군이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단기적인 구조조정조차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북에 대한 경비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들고 군사적 긴장을 강화시켜 장기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군의 개입능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아시아 제국과의 군사적 불균형을 가져와 군비경쟁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군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중-미 전쟁 등에 하위 동맹자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대미종속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비관적 전망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둘째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패배이며 후퇴라는 것이다. 그것은 북미간의 대결상태가 종식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교전당사국(북·중·미)들은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한 것이다.

북미 대치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체결은 정전협정의 파기와 정전협정 4조 60항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에 의거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북미 핵대결이 평화적 방법으로 종결될 경우 북미평화협정체결 요구는 피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급속히 약화시켜 남북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셋째는 이상에서 제시한 양극단의 견해와는 관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찌됐던 주한미군의 감축은 동북아 전체의 평화군축협상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평화군축의 기회를 품고 있기도 하다고 보고 더더욱이나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에 즈음하여 김선일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을 희생한 위에서 추구하는 안보가 진정한 안보일 수 없고 한국전쟁 발발 54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재조정과 군축을 전제로 한 토론회 등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미관계의 재조정과 외교주권의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3. 동북아 사령부로의 전환

이상에서 살펴본 둘째, 셋째의 견해는 다분히 희망적 견해일 수 있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민족적 역량, 반전평화운동 역량을 키워 나가자는 운동지향적 선전선동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미국은 이른바 럽스펠드 개념을 도입하여 전면적 전략, 전술을 재편하고 있다. 이의 주조는 영국과 일본을 기본 동맹축으로 하고 여타 지역을 신속대응군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일본의 자위대는 필요하면 즉각 북한 등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행할

전력과 체제를 갖춰 놓은 상태인 것이다. 세계 제5위의 군사대국인 일본 자위대의 전력증강 가운데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외군사작전능력, 곧 공격능력의 급속한 강화라는 점이다. 그들이 종래는 러시아를 의식하여 홋카이도 북방에 주요 배치한 육상자위대 또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서 서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이보다 먼저 2002무력공격사태법 등 전시대비법인 유사 3법에서 주변사태의 개념을 무력 공격이 예측되는 상황까지 확대한 것이다. 무엇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는 종래의 미군에 대한 군수지원이나 작전지원 등의 지원 단계를 지나 미군과 일체화 통합운영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본 자위대는 미군의 재편 계획에 맞춰 일본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긴급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 중추로 삼고 부대 운영의 효율성과 전력을 높이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본 가나가와 현의 자마 기지로 옮겨 갈 것으로 확실시되는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는 축소된 주한미군의 지휘부로 구실이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미군사령부의 일본 전방 배치는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의 연계 강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오키나와 미 해병대 일부 병력이 옮겨가게 되어 통합력을 증대시킬 것이고, 공군 쪽에서도 두 나라 공군지휘부의 연대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 2004년 9월초 예정된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 되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은 MD체제의 통합운용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편으론 북침전쟁을 획책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동북아 사령부’를 구상하고 이를 집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본질적으로 한미연합사의 기능이나 한미방위조약의 성격을 변화시켜 한국군의 대미·대일 종속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것도 또한 북미 대결이 어떻게 귀착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킬 것을 의도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포석임은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한 점인 것이다.

#### 4. 인류적 양심

동양인의 예지에 의하면 천하를 말 위에서 얻을 수는 있으나(무력으로 천하를 제압함을 의미) 통치는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국이 강대국의 체통을 살려 합리적으로 유연한 세계지배를 기도할 때 장기간 경쟁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을 앞세워 무리한 지배력을 행사할 때 급속한 지배력의 상실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류사회에는 인류적 양심이란 것이 있어서 그 인류적 양심을 거역할 때 인류적 저항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뒷골목 깡패대장도 그에 상응하는 인격을 갖게 마련인데 하물며 세계 최강의 국가라면 그 힘에 상응하는 정치력·외교력을 발휘하여야 하고 이를 밑받침하는 최소한의 도덕성, 논리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역사전개의 방향은 모순의 대립과 투쟁,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다. 그리고 실제의 역사 진행은 사회제력(社會諸力 : 과거, 현재, 미래까지를 포괄하는)의 작용과 반작용의 총체적 발현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그들 추종세력의 무리한 세계지배는 그에 상응하는 반작용, 즉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이고, 이와 같은 작용과 반작용의 총화적 귀결로서 진행되게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윌러스틴은 <미국패권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이제 불시착한 독수리일 뿐이다”라고 갈파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전쟁구실이었던 대량살상무기는 있지도 않았고 팔루자 학살과 충격적인 포로의 성고문과 학대로 '더러운 전쟁'으로 바뀐 지 오래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는 미국은 “진정한 힘을 결여한 외로운 초강대국, 추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존경하는 사람마저 거의 없는 세계적 지도자,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의 와중에서 위협스럽게 표류하고 있는 나라”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윌러스틴은 구체적으로 9.11사태는 미국의 쇠퇴와 허약성을 보여주는 최종적이자 상징적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이미 최종단계의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몰락하는 체제와 향후의 새롭게 형성될 체제의 혼돈스러운 세상이란 것이다.

그에 의하면 미국이 누렸던 세계적인 헤게모니는 세계경기침체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긴 과정으로 전후 시기 미국이 헤게모니국가로 성공하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소멸될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9년을 전후한 사회주의권의 해체는 자본주의의 승리라기보다는 그 적수가 사라짐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미국은 아프간이나 이라크 같은 주변부 독재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동맹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군사력을 동원했는데 이 점이야말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하는 증거라는 것

이다.

미국이 명실상부한 헤게모니국가라면 유엔은 물론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 정치외교적 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모양 사납게 군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전성기시대의 압도적인 정치력과 경제력을 상실하고 이제는 오로지 막강한 군사력으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시 행정부가 주도한 매개의 군사패권주의적 모험도 미국패권의 쇠퇴를 반전시키려는 안간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윌러스틴은 결론적으로 “미국은 패전중이다” “깊은 구렁에 빠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구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윌러스틴의 이와 같은 날카로운 통찰력에는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전제되어 있다. 즉 미국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군산복합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심지어는 정보까지 독점하여 조작하면서까지 세계적 긴장을 조성하고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해에 연연하고 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다면 전쟁은 지구상 어디엔가 항상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대량파괴, 대량살육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건, 복구라는 이름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지고 관련 집단의 경제적 이해에 따른 결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말기적 현상의 반영일 뿐이다. 과잉생산능력과 과소비, 이윤율의 지속적인 저하가 새로운 사회구성체제로의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반증이 될 것이다.

## 5. 동북아시아 - 또는 한반도 시대의 도래?

굳이 토인비의 사관을 빌리지 않더라도 세계사의 중심무대와 담당 주체는 바뀌어 왔다. 세계사의 중심무대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그리스, 로마→중유럽→서유럽→아메리카 대륙으로, 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 왔고 많은 석학들이 서구문명의 몰락→태평양시대 또는 동북아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역사발전의 계기성 명제, 사회구성체 이행의 계기성 역시 이처럼 중심 무대와 담당 주체의 변화에 따라 세계적 규모에서 관찰되어 온 것이다. 즉, 이집트·메소포타미아의 아시아적 생산양식→그리스·로마의 노예제 생산양식→중

유럽의 봉건제 생산양식→서유럽의 초기 자유경쟁 자본주의→아메리카 대륙의 독립 자본주의, 또는 초국적 자본주의가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진보적 인사들이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성체 다음으로 소비에트에서 실패한 관료주의적 사회주의를 기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한갓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현 시점에서는 명백해진 것이다. 물론 그 잔해로서도 오늘의 세계를 규정하는 조형축으로 역할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제 몫을 다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제사회구성체의 이행논리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중심 무대와 담당 주체가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온 경로는 우연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논리성이 개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행 경제사회구성체는 반드시 자신의 체내에 후속 경제사회구성체를 잉태하여 일정 기간 병점하다가 역사적 제도권의 성숙과 함께 그 지배적 위상을 교체하여 왔다. 그리고 후속 경제사회구성체는 선행 사회구성체의 주변부에 지나지 않지만 주로 구체제의 질곡이 느슨한 신천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를 성립해 억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신천지(New Frontier)에서 성립되어 성장하다가 일정 시기에 이르러 지배적 위상을 교체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세기 후반까지의 세계적 규모의 신천지는 아메리카 대륙이었고 21세기에는 시베리아를 포함한 동북아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와 같은 논의가 사실화될 수 있다면 대륙과 해양의 연결지점으로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부각되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엄중한 생존 조건인 시베리아의 개발에 어떤 종족이 강한 적응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종족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베리아는 우리 민족의 종족적 발상지이기도 하고 현존 인류 중에서 가장 강한 적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자.

다음에는 세계사도 분단민족이 자력으로 재통일하였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여 세계사를 주도해온 선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역사는 창출되어가는 것이지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민족예지와 역량을 합리적으로 결집해 나간다면 세계사를 주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주변 강대세력에 의해서 분해 흡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공조, 또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이라는 관념은 이미 대중화 되어가고 있기도 하고 설득력도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피부로도 느끼게 됨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기마민족의 혈통에 농경화된 민족의 특질을 갖는 종족적 특성이 IT산업화시대에는 강력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개연성이 있고, 우리의 모든 문화전통이 또한 이를 밑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존심의 회복에 있다고 생각된다.

사월혁명회보 제73호(2004.7)